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Business: 미 경제 한가지 신호: 상당수 미국인 자동차 대출금 연체
- Bloomberg: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 높은 Waller이사, 0.25% 인하 지지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연준, 대형은행 자본확충 축소안 제안

[미국 행정부]

- Bloomberg: 미 연방 섣다운 사상 두번째로 길어져

[H-1B 비자]

- CNNBusiness: 월마트, H-1B 필요한 지원자 사절한다

[의료보험]

- WSJ: 미 가정당 의료보험비는 평균 2만7천불

[오일]

- Bloomberg: 오일가 상승...러시아산 원유 관련 미국 인도 합의 임박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글로벌 경제는 무역전쟁과 AI 두려움 불구하고 회복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소매업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ChatGPT
- NYT: 아마존, 일자리 절반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 Bloomberg: Uber와 Nebius, 로보택시 회사에 3억 7,500만 달러 투자

[미국 경제]

CNNBusiness: A significant group of Americans are falling behind on their car payments - an economic warning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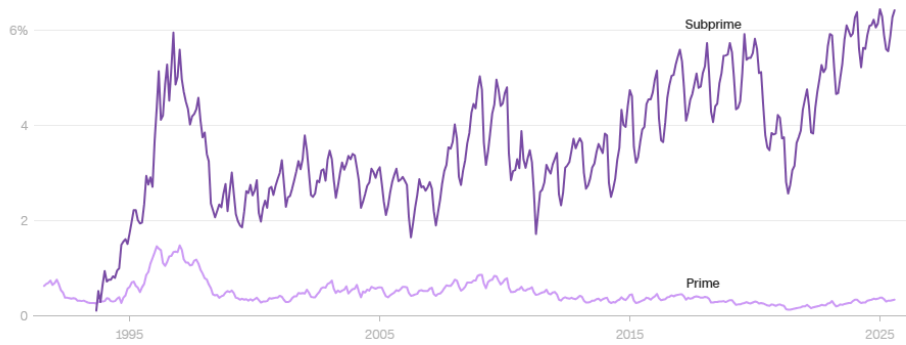
미 경제 한가지 신호: 상당수 미국인 자동차 대출금 연체

- 미국인들이 자동차 융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이는 미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우려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 Fitch Ratings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70점 미만인 '서브프라임(subprime)' 차주들의 경우 최소 6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이 6.43%로,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팬데믹을 포함한 과거 주요 경기 침체 시기보다도 더 악화된 수준이다.
- 서브프라임 연체율은 1990년대 초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25년 1월이다. 또한 자동차 압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Lower-income borrowers are falling behind on car loans

Prime borrowers are mostly staying current on their car payments. But the percentage of subprime borrowers at least 60 days late has doubled since 2021.

Percentage of borrowers who are 60+ days late on car loan payments



Source: Fitch Ratings
Graphic: Matt Egan, CNN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Waller, a Top Fed Chair Contender, Backs Rate Cuts Without Bowing to Trump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 높은 Waller이사, 0.25% 인하 지지했다

- 파월 의장 후임으로 연준 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Christopher Waller이사는 지난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0.25%를 지지했다.
- 그는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주창해온 인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향후 연준 의장 후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연준의 예산 절감과 같은 이슈에 대한 그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Fed Floats Plan With Much Smaller Capital Hikes for Big Banks

연준, 대형은행 자본확충 축소안 제안

- 연준이 월가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본 확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른 규제 당국들에게 제시했다.
-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 요건을 기존 3%에서 7%까지만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규제 당국들은 이른바 시장 리스크라고 알려진 트레이딩, 자산 관리, 투자 은행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방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행정부]

Bloomberg: US Government Shutdown Is Now Second Longest in History

미 연방 셧다운 사상 두번째로 길어져

-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헬스케어 지원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정부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긴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
-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에게 한국 APEC 방문 전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트럼프는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야 면담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가 중단된 가운데 경제적인 여파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H-1B 비자]

CNNBusiness: Walmart halts job offers for applicants who need H-1B visas after Trump raises fees to \$100,000

월마트, H-1B 필요한 지원자 사절한다

- 미국의 최대 고용회사인 월마트는 자사에 일하기 위해 H-1B 비자가 필요한 지원자에게는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최근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 이는 트럼프의 이민 제한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채용 정책을 변경시키는 단적인 예이며, 기업체들과 해외 고숙련 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수수료만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H-1B 비자는 3년 유효하며 3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비자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비즈니스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아마존 역시 지금까지 2천명의 해당 비자 소지자들을 채용해온 바 있다.

CNNBusiness 기사

[의료보험]

WSJ: The Average Cost of a Family Health Insurance Plan Is Now \$27,000

미 가정당 의료보험비는 평균 2만7천불

-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 단체인 KFF에 따르면, 미 의료비용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의료비용이 가정당 연 2만7천불까지 육박했다.
-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수치로, 그 전 2년간에도 각각 7%씩 상승했다.
- 이처럼 의료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고용과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Gains on Report US Nears Deal With India to Cut Russia Flows

오일가 상승...러시아산 원유 관련 미국 인도 합의 임박

- 미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축소를 위한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가 약 2% 올라 배럴당 63달러 근처에 거래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일부 만회했다.
- 인도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완전 중단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EU는 러시아에 대한 19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다.
- 그러나 유가는 여전히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축을 위해 100만 배럴 구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The world economy shrugs off both the trade war and AI fears

글로벌 경제는 무역전쟁과 AI 두려움 불구하고 회복세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언 이후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지만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이다.
- 골드만삭스와 JPMorgan에 따르면, 실제 경제 지표는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관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다만 몇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데이터 센터 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ChatGPT Should Make Retailers Nervous

소매업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ChatGPT

- ChatGPT가 소비자들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소매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 OpenAI는 ChatGPT의 Instant Checkout 기능을 활용하여 채팅창을 떠나지 않고 결제까지 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 Walmart, Esty, Shopify 모두 ChatGPT와의 협력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소매업체들은 생성형 AI로 유입되는 트래픽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노출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하지만 소비자들이 소매업체 웹사이트나 앱을 건너뛰고 결제하는 것은 소매업체들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손쉬운 가격 비교와 간편한 직접 결제는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소매업체들의 광고 수익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OpenAI가 광고 사업을 시작하면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업체들의 최적의 시나리오는 소파, 세탁기 같은 고가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특정 상품만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식료품 같은 일상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매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 수익도 유지할 수 있다.

WSJ 기사

NYT: Amazon Plans to Replace More Than Half a Million Jobs With Robots

아마존, 일자리 절반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미국 내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로봇 도입을 통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전체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면 제품당 약 30센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아마존의 루이지애나 물류센터는 인력 없이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모델을 전국 40개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주 물류센터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그리고 기술직 및 유지보수 직종 위주로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아마존은 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좋은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직접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하거나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방안 등 이미지 관리 방안이 내부 문서에서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NYT 기사

Bloomberg: Uber, Nebius to Invest Up to \$375 Million in Robotaxi Firm

Uber와 Nebius, 로보택시 회사에 3억 7,500만 달러 투자

- Uber와 Nebius는 네덜란드 클라우드 인프라 회사인 Avride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최대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이번 투자는 자율주행차와 식품 배달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Avride와 맺은 수년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한 것이다. 두 회사는 Jersey City, Austin, Dallas에서 배달 로봇을 시범 운행했으며 올해 말 Avride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현대자동차 Ioniq 5를 선보일 예정이다.
- Uber는 Waymo나 Tesla 같은 타 로보택시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12개 이상의 자율주행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